

## 제 3주제

---

# 高麗의 始原領域 遊牧草地, 그 부르칸[不咸]이즘과 한국 축산의 비전

연 사 : 주 채 혁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



# 高麗의 始原領域 遊牧草地, 그 부르칸(不咸)이즘과

## 한국축산의 비전

周采赫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타칭 코리아(korea)인 高麗(khori) - 고구려 곧 현재 한국의 역사적 태반이 되는 시원 영역은 오늘날의 한반도가 그 주 무대가 아니다. 역사적 태반기의 씨눈을 형성한 중핵이 되는 토대인 주된 생업도 농경이 아니고 농목 이전의 특수목축 유목생산업이다. 따라서 그 무대는 미상불 타이가 - 스텝 - 툰드라지대인 북방유라시아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서북유라시아와 북미주 일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몇 천 년 농경 정착생활을 해온 한반도 역사가 설계한 오늘날의 한국학자들의 눈으로는 쉽게 읽어내기 어려운 역사적 정체성을 속성으로 한 것이 오늘날 한민족의 실체일 수 있다. 1500년대 이전 앵글로색슨족의 역사적 정체성이 오늘날의 아메리카대륙에서 확인될 수 없듯이 한민족의 그것 또한 그럴 수 있다.<sup>1)</sup> 몽골세계제국을 창업한 몽골유목민이 기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듯이 해양세계제국을 이룬 영 - 미제국 또한 그런 속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朝鮮의 「鮮」을 '순록'의 주식인 이끼 - 蘚이 나는 타이가 - 툰드라의 '유목초지'<sup>2)</sup>로, 코리아의 원사료 한자 焮

1) 북방개방(1990년) 이래로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는 역사도 보이지 않아', 스텝-타이가의 시골로, 그것도 주로 시골의 민가로 떠돌며 답사해오기 십수 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런 눈이 조금씩 띄여가기 시작했다. 앵글로색슨 등 서구세력이 아메리카에 발을 붙인 이래로 수천만으로 추산되고 있는 이 이전의 아메리카 인디오들은 그 후 거의 멸종돼 버렸다.

2) 주채혁, 「朝鮮·鮮卑의 「鮮」과 馴鹿遊牧民-몽골유목기원과 관련하여-」, 『동방학지』 11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0년 12월, 177~220쪽.

\_\_\_\_\_, 「朝鮮·鮮卑의 鮮(Soyon)族 起源考-原조선겨레 '소윤'족에 관하여-」, 『백산학회』 63, 백산학회, 2002년 8월, 5~45쪽.

蘚(lichens: 지의류)이 鮮에서 주로 자라는 생태학적 이유에 대해 지난 8월초순 바이칼호 - 야쿠치아 공화국 답사시에 식물학자 오용자 교수의 설명을 들었으나, 필자의 短見으로 잘 이해치 못했다. 이 뿐만 아니라 그 종류와 분포를 DNA 비교 - 분석으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으면 한다.

동북아에서 명멸한 백여 종족이 예외 없이 獸祖傳說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수조전설이 전부인 동북아에서 朝鮮과 高麗가 순록과, 貊이 너구리와, 濊가 숫수달과 직관된다는 2000년 전후

寫 표기 「高麗」를 그 초지에서 꼴을 뜯는 유목의 주체인 '순록'³) 자체로 본다. 이럴 경우에 고려족의 시원영역은 자연스럽게 타이가 - 스텝 - 툰드라에 가서 닿게 되고, 유목민은 그 삶의 특성이 일반 농경지와 크게 준별되고 다른 유목초지와도 구체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수시로 또는 영원히 떠나 살 수 밖에 없는 특수목축 유목의 속성상 농경정착민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필사적이라 할 정도의 강한 모태 회귀성향을 지닌다. 북방유라시아 유목민의 경우 이를 부르칸(不威)이즘이라 한다. 스키토 - 시베리아 기원설이 주류를 이루는 고려족-한민족의 경우에 그 유전체(genome)가 주로 타이가 - 스텝 - 툰드라라는 유목지대에서 설계돼 왔기 때문에 모태 회귀성향 부르칸이즘이 강하게 잠재적 정서로 작용하는 본질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잠재적 부르칸이즘이 축산업 세계화 시대의 한국축산에 제시하는 비전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 본 고에서는 이런 시각에서 고려족의 역사적 시원문제를 한국축산의 장래와 연계시켜 함께 생각해보려 한다.

## II. 한민족 북방기원설과 高麗의 시원영역 遊牧草地

한민족 북방 기원설에 관해서는 '조선 순록유목 기원설'로 함축되는 필자의 견해를

필자의 몽골-시베리아 현지답사 보고에 대해 맹반격을 가해왔던 한국학계는 도대체 어떤 전통의 맥을 이어온 실체인가? 과거시험 보아 학계에 진출한 정약용이 그의 『我邦疆域考』, 『蕨貉』에서 貉을 오소리라고 하는데 이는 漢인들이 우리를 깔보고 하는 이야기라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음을 상기케 된다. 가통이 신숙주에 가서 닿는 신채호의 논문에서도 이런 관행은 예외가 아니다. 농경중심사관의 정답에만 사활을 걸고 사대부의 길을 헤쳐 온 가통 속에서 비롯된 결과들이 아닐까? 지금의 우리 사학계는 이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遊牧이라는 단어만 漢字로 읽었다고 해서 유목사관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물론 양심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체로 몸소 체험하거나 배워서 아는 만큼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어서다. 압록강과 두만강만 넘어서면 언제 어디서나 아무도 '朝鮮'의 '朝'字를 '아침 조'자로 읽지 않건만, 한국 사학계에서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고수했었다. 근거 없는 고정관념에 목숨도 걸기를 서슴치 않는 어이없는 교조주의 전통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왜인지 유교든 기독교든 마르크시즘이든 한국에만 들어오면 교조적 절대로서 장기간에 걸쳐 동족상잔을 불러일으켜 국력을 쇠진케 하곤 한다. 朝鮮이라고 漢字로 기록해 남긴 '원전' 사료는 엄연히 漢人 학자의 기록일 터인 즉 그것을 漢人の 발음관행으로 읽고 해석하는 일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 3) 주재혁, 「鮮」의 高麗와 '小山'의 馴鹿 연구 - 「鮮卑郭洛帶」를 중심으로 -, 『백산학보』 67, 백산학회, 2003년 12월 337~360쪽.

\_\_\_\_\_, 「朝鮮의 순록유목 起源史 연구 試論」, 『한국시베리아학보』 4, 한국시베리아학회, 2002, 57~74쪽.

이미 밝힌 터이지만, 여기서 「高麗」란 高朱蒙의 高麗 곧 高氏 高麗 - '고구려'를 자칭하는 그들의 종족명 내지 국명을 일컫는 것으로 물론 10세기에 한반도에 세워진 고려왕조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한의 국제적 총칭인 코리아를 함께 지칭하는 것이다. 그 뜻은 코리아크, 오른춘, 투르크와 몽골어로 차아복 - 馴鹿이다. 아시아대륙의 1/4이고 세계육지의 1/10인 세계최대의 타이가 - 스텝 - 툰드라 지대에서 식량채집단계에서 식량생산단계로 나아가는 생산혁명과정을 거치며 지배종족 내지는 고대정복제국으로 발전해갈 생업으로는 순록유목과 개활지 스텝의 양유목 외엔 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지만 작은 권력은 큰 권력에서, 그리고 나중에 생겨나는 권력은 먼저 생겨난 권력에 도전 - 응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역사현실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의 경우에 15세기 총포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권력은 몽골세계제국의 역사적 기반이 그러하듯이 대규모 양유목생산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騎馬射術에서 주로 비롯되었다. 騎馴鹿 순록유목민 내지는 騎馬羊遊牧民이 주로 목농제국의 핵우산으로 생산을 위한 치안유지와 정치적 질서를 보장했던 것이다. 물론 남방해양세계제국의 출현도 이에 이어 15세기 이후부터 급속히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라시아 고대제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기상으로, 艦砲의 역량 발전이 아직 태아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차원에서 力不及이었다. 이에 미상불 타이가 - 스텝 - 툰드라지대의 유목적 역량에서 조선 - 고려의 종족 - 고대제국의 역사적 태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양유목의 뿌리로 순록유목이 존재하여 타이가에서 힘을 기르며 점차로 개활지인 스텝으로 진출해 기마 양유목민이 되고, 기마 양유목으로 그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마양유목제국이 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목농을 아우르는 유목 주도의 고대세계제국이 출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생산적 토대는 당연히 목초지이고, 풀이 작고 드문 드문 나는 타이가 - 스텝 - 툰드라라는 한랭 고원 건조지대에서 특수목축인 유목이 주도 생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당연히 광역초지의 확보가 개인과 종족 및 국가의 생존에서 필수 조건이 되었다. 물론 유목생산의 발전과정에서 無主 초지는 공유초지로 더 나아가서는 사유초지로 분화 - 발전해 갔고, 그래도 초지가 부족할 때는 끝없이 초지를 정복 또는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총포가 등장하는 15세기 이전까지는 러시아의 3/4을 점하는 시베리아도 유목민들의 목초지요 북남미주 고원 건조지대의 광활한 목초지 또한 이들 시베리아 원주민 출신 유목민의 목초지였다. 실은 스텝제국에 이은 해양제국이 함께

공유하는 특성은, 광활한 개방공간을 생존무대로 말과 활이나 함포로 무장한 기동성과 조직력을 무기로 무한경쟁에서 최후의 일인 승자로 살아남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텝제국을 아우르는 정복전쟁과정에서 해양제국이 창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자는 모두 ‘광역 소수민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공유하면서 상대적으로 ‘협역 다수민족’일 수밖에 없는 농경제국과 대비된다. 역사적 태반 면에서 보면 그런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이 광역 소수민족인 韓族의 한국과 협역 다수민족인 漢族의 중국이다. 韓族 한국의 뿌리는 유목초지이고 漢族 중국의 뿌리는 농경황토인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한반도 주민인 현대 한국인들이 이런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깨달아 자기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키는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지극히 어렵다. 유목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미 너무 농경 - 정착화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주로 태평양 바다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의 한반도 삶터에는 순록의 주식인 이끼-蘚(lichens)도 스텝의 羊草도 없고, 따라서 물론 순록유목민도 스텝의 기마양유목민도 생존할 수 없다. 그런 채로 농경 정착민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던 때문이다. 마치 앞으로 천여 년 후에 현재의 아메리카 앵글로색슨족의 15세기 이전의 역사적 시원 - 태반을 아메리카대륙 자체에서 찾으려는 주체적 자각을 시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리라는 가정을 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당장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광역 소수민족의 유목초지라는 시원적 태반을 망각하고 그 이동성과 기동력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유목사적 자기 태반에 대한 史盲 한국사학계가 빚어내는 치명적인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목시원사적인 자기 정체성 상실의 惡果가 병인이 된 중증 고질병이라 하겠다. 금세기 한국의, 고구려역사와 그 역사적 태반 상실 위기가 그 고질병에서 비롯됐고 그 고질병이 근치되지 않는 한은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단순한 위기가 아닌 엄연한 현실로 한국인을 엄습해 삼켜버릴지도 모른다.

### Ⅲ. 북극해권 바이칼 유목종족 태반과 태평양권 대만주 유목제국 창업기지

필자는 1990년 초에 스텝 - 타이가 답사를 시작한 이래로 줄곧 시베리아의 물이 주

로 북류해 북극해로 흘러드는 데에 주목해 왔다. 그러다가 대홍안령 언저리 스텝과 타이가를 답사도 하고 관계유적 발굴현장에도 때로 동참해온 십수 년 세월을 보내면서는 태평양권으로 흘러드는 시베리아의 물이 있음을 실감케 되었다. 그리고 2004년 8월 3~10일에 있었던 답사4)에서 야쿠치아 공화국 레나강변의 망망한 대초원을 밟고 나서는 오비강 - 예니세이강 - 레나강 등 북극해로 흘러드는 강하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칼 권역과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셀렝게강과 오난강 - 에루구네강. 그리고 눈강과 송화강을 아우르는 아무르강권 및 대홍안령 남부의 요하를 중심으로 대만주권역이 야블로노비산맥 - 스타노보이산맥 - 오호츠크해에 이르는 이른바 외홍안령을 분수령으로 삼아 크게 양분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분명히 이 대만주권에는 대홍안령과 소홍안령 및 대홍안령 북서부의 홀룬·부이르호수 지역의 비옥한 대초원을 내포하고 아무르강과 눈강, 송화강 및 우수리강이 태평양 동해로, 요하가 태평양 황해로 흘러들면서5) 몽

- 4)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 이지욱 이사장의 체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바이칼포럼 코리아팀(34인)의 바이칼 - 야쿠치아 학술답사였다. 이전에 이미 캄차트카반도에 답사를 다녀온 한중만교수(배재대; 당시 한국 - 시베리아센터 소장)의 도움말에 힘입어 외홍안령을 분수령으로 하는 바이칼 태반권과 북방민족고대제국 창업기지 대만주권을, 레나강의 북류와 아무르강물의 동류를 기준으로 삼아 나누어 보았는데 이 번 답사로 이를 새삼스레 확인한 것이다.
- 5)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적지 않은 한국의 사가들은 漢人 주도의 역대 국가들 이외의 북방민족 주도의 역대 국가들을 모두 韓國史에서 제외시켜 漢(족)國史 - '중국사'로 편입해 넣는 자기소멸적 역사인식관행을 의식 기층에 깔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 간도를 천 수백 년간 「중국」이 지배해왔다'니 발해도 중국이고 요, 금, 원, 청도 모두 漢人의 나라 중국이란 말인가? 그 이유야 어찌되었던 순록·양유목이라는 태반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 부여와 고구려의 품에서 자라나왔던 발해, 거란, 여진, 몽골과 만주를 단지 그들이 漢人의 나라들과 관계가 밀접했거나 그들의 中原땅을 정복 - 지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까지나 역사는 역사일 뿐인데도 제나라 역사에서 양과피질 벗겨내듯 떼어 내버리는 관행은, 자기들이 세우거나 정복 - 지배한 나라는 물론 자기들을 정복 - 지배한 세계제국까지 게걸스럽게 먹어 삼켜대는 인류사상 유례없는 장제스 - 마오쩌퉁 이래의 극악한 차이나 역사제국주의의 포효 앞에서는 역사적 자살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몽골의 식민지인 무갈(인도)제국을, 영국이 백여 년간 지배했다고 인구가 압도적으로 영국보다 많은 인도가 그 후 몽골과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면서 이미 망했거나 국세가 많이 기운 몽골이나 영국의 역사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망발이다. 그러나 마오쩌퉁과 그 세습자들은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파렴치한 역사 제국주의자들이다. 만주족에게 2백 수십 년간 식민지배를 당한 明나라의 漢族들이 그 후 독립하면서 中原의 역사는 물론 만주족의 태반인 만주 자체를, 유목태반 출자인 조선·부여·고구려·발해·여진·몽골·만주의 엄연한 역사무대인 만주 땅의 역사까지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삼한 삼국의 일본 분국설」은 가능하고 「삼한삼국의 중원분국설」은 망상이기만한가? 실제로 그런가, 아니면 편협하고 그릇된 史眼으로만 보아 그런가? 길고 넓은 차원의 삼한삼국 중원분국 시각으로 북위, 당, 요, 금, 원과 청제국을 보면 안 되는가? 같은 순록·양유목민 태

꿀 - 시베리아고원 기타지역의 강물들이 북극해로 흘러드는 것과는 달라서 유별난 한 권역이 이루어졌음에 틀림이 없다.

대만주라는 거대한 목농지대가 펼쳐져 있는가 하면, 고원지대의 타이가(小山 - 鮮)와 준별되는 연해주까지 같은 권역이 이어지는 장백산맥(大山)이 남동쪽에 우뚝 솟아 바다에 둘러싸인 한반도를 배후로 천연요새를 이루고 있다. 스텝 - 타이가 지역의 騎馬射術을 주력으로 하는 유목기마군단의 내침을 막을 요새 구축 기지가 되었다는 것이다.<sup>6)</sup> 동해와 남해, 서해로 이루어진 해양환경은 중·일·동남아 및 서아시아에 이르는 해상무역을 가능하게 하여 고대제국 창업의 근거지로 손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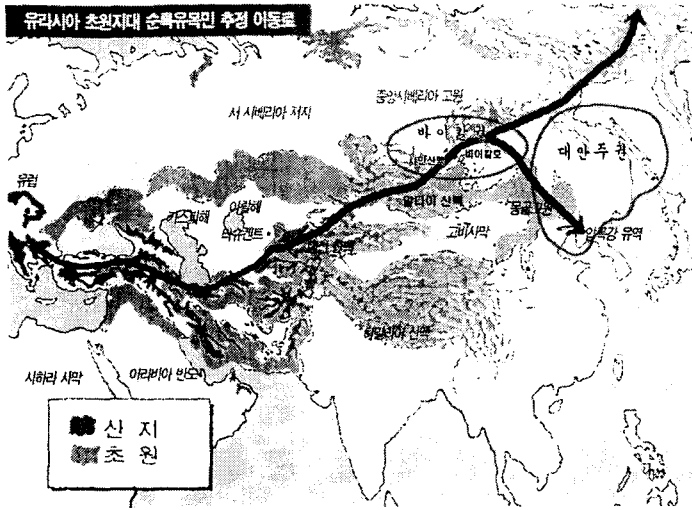
홀룬부이르지역은 스텝 - 타이가 - 툰드라와 만주의 비옥한 牧農 지대를 잇는 중핵 스텝 - 타이가 지대로 홀룬호수와 부이르호수를 내포하며 아무르강 이남 비옥한 대만주권의 初入이기도 하여, 흉노 - 조선 - 부여 - 고구려 - 선비 - 돌궐 - 거란 - 여진 - 발해 - 몽골 등의 유목 태반 출자의 고대·중세제국들을 잉태해 길러내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중에서도 소흥안령 상부 건너편쪽 아무르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징키르(러시아 지도의 Зейя) 강은 북아시아 한랭 고원지대를 태반으로 태어난 여러 종족들이 고원 스텝으로 진출하느냐 만주의 목농 지역으로 발전해 가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음을 현재 대·소흥안령 북부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바르구족, 에웁키족이나 오룬춘 및 다구르족의 구비전승을 통해 알 수 있다([지도]<sup>7)</sup> 참조).

---

반 출자의 국가로 조선, 부여, 고구려와 발해의 품속에서 자라나 요즈음 표현으로 증원을 위시한 동아시아나 유라시아를 그 '핵우산'하에 질서지운 史例로 읽을 수는 도저히 없는가? 광역 유목 기반 출자의 조직된 소수 한국인이 狹域 농경 기반 출자인 인해전술 명수 차이나인을 피식민과 식민, 피침과 침략을 '다수결독재'로 자기합리화해주는 차원에서만 이들 漢人 침략자의 역사제국주의 침략에 대응한다면 그 승패의 결말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겠는가. '한·중역사전쟁'에서 한국인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主敵은 실로 漢人이 아니라 韓人 자신의 제 눈으로 제 역사를 제대로 보는 눈의 눈멀 - 史盲, 자체일 수 있다. 韓人 史家들의 제 역사 誤認일 수 있다는 것이다.

- 6) 스텝·小山(鮮) 유목지대의 기병과 大山의 山野를 아우르는 목농지대의 기병은 羊馬의 목초, 특히 羊草와 전사의 군량 및 음료 조달이라는 점에서는 물론 人馬의 지형 및 습도에의 적응도 면에서 적지 않은 차별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예컨대 몽골초원의 양초는 만주의 저습지대 草甸子 초원의 독이 있는 풀이 섞인 잎이 넓은 풀들과는 목초(풀)로서의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한다(2004년 7월 1일 이성규 전 강원대 교수, 전 草地學會 회장의 도움말). 그러므로 고구려의 기병이 몽골기병의 도움이나 선도 없이 몽골초원에서 그들과 전투를 벌이는 일은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지 유목민들의 말에 의하면 羊草의 질에 따라 양고기 맛이 다르다고 하며, '진니 아이락'이라고 하여 '진'이라는 달래류 목초가 많이 섞인 풀을 뜯어먹은 말의 젖으로 만든 말젖술은 특히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 7) 『월간중앙』, 2003년 7월호, 「역사탐험」 2 스페셜 리포트 <한민족 기원 미스터리> : "한국인은





[지도] 「이끼(薜)의 길」; 사얀(鮮)산맥 - 바이칼호 민족태반과 북방고대국가 창업기지 대만주권

한국 고대국가 형성기반인 대만주권도 실은 눈강과 송화강 이북의 동해권과 요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남의 서해 - 황하권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셀렝게강 - 오논강 - 실카하 - 부이르호수 - 흘룬호수 - 이민하 - 하일라르강 - 에르구네하와 만주의 눈강 - 송화강 - 우수리강 등이 아무르강으로 합류해 동해바다로 흘러드는 오호츠크해까지의 권역과, 대흥안령 남부에서 遼河를 거쳐 서해 곧 황하로 흘러드는 권역은 그 생업상의 성격이 우선 크게 다르고 따라서 어느 시기까지는 역사적인 기층의 흐름도 본질적으로 그 성격을 각각 상당히 달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곧 이들은 어느 시기까지는 서로 준별되는 질적 차이를 보이는 역사배경을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동해권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면서 스키토 - 시베리아 문화의 순혈통을 상당히 제대로 유지한 채로, 북방유목사의 전통을 고수해온 쪽이고, 발해연안을 위시한 서해권은 동아시아중해라 할 서해를 중심으로 농경과 해상무역을 통해 그 나름의 농·목적 문화를 창출해낸 권역이기 때문이다. 동해권도 특정 시대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제국 문화권역에 자진해 적극적으로 편입되기도 하지만 역시 그들은 한반도의 북방전통 수호자로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버텨 내려온 주류라고 하겠다.

그런데 내몽골 몽골학자들은 스텝을 다시 몽골고원식의 고원의 大스텝과 타이가 속에 산재하는 산중 스텝 및 특히 아무르강 이남 저습지대에 있어 목초가 비교적 무성한 草甸子 스텝으로 세분한다. 그리고 해안인 연해주를 내포하는 大山地帶인 장백산맥

어디서 왔나?" 주채혁, 「한민족 기원3; 북방기원설」, 17쪽의 지도에 조금 손질을 해서 게재한 것이다.

권의 목초지는 물론 스텝이 아니다. 스텝도 종류에 따라 목초의 종류와 질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물론 대산지대의 목초와는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목축하는 가축의 종류도 각각 상이할 수 있다. 이런 목초의 종류와 질을 각각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유목 고려족이 목농단계를 거쳐 오늘날 한반도에 정착-농경화하는 점진적인 역사적 발전단계를 밝혀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V. 부르칸(不感)이즘과 한국축산의 비전

그런데 고려의 시원영역권이라 할 이런 유목초지 지대인 북유라시아에는 부르칸이즘이라는 모태회귀 신앙이 분포돼 있다. 물이 있는 곳이면 버드나무가 있고, 버드나무 떼가 있는 땅이면 대개 수렵-유목민들이 살아 왔다. 버드나무 가지에는 흰 색, 누런 색, 그리고 붉은 색이 있는데 붉은 색 버드나무인 紅柳는 자작나무와 함께 그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 버들아기와 같은 말이 있듯이, 버드나무는 이 지역에서도 대체로 여성을 상징한다. 고주몽의 어머니인 柳花는 그 이름 자체가 그대로 ‘버들꽃’이라는 뜻을 갖는데 만주인들의 ‘보드마마’ 신앙과 직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버들어머니’ 신앙인 셈이다.

그런데 ‘不感’을 최남선이 ‘밝음’으로 해석한 것과는 달리, 거의 같은 시대를 살다간, 몽골의 대표적인 언어학자 베·에린친은 『몽골비사』 초두의 몽골 여시조 알랑고아 관련 기사에 나오는 ‘부루칸·칼둔’의 ‘칼둔’을 일종의 버드나무 이름이라고 보아 ‘부르칸(不感)’을 버드나무와 관련시키고 있다. 원래 시베리아 삼림민족이었던 몽골겨레의 신성한 신앙대상인 오보오도 실은 타이가지대가 생존무대일 때는 돌이 아닌 버드나무로 만들어서 버드나무 오보오-borgasan oboo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버드나무’ 자체를 ‘부르칸’이라고 하는 赫哲(나나이)語 단어는 ‘푸르칸’과 ‘버드나무-보드마마’ 신앙이 직접 접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龍王의 딸 河伯女 柳花가 그러하듯이 버드나무는 바로 물과 직관되어 있다. 그리고 몽골여시조 알랑고아나 柳花, 그리고 그 元祖라 할 북부여 동명성왕의 어머니 槁離國의 侍婢가 그러하듯이 그들은 햇빛을 받아 천손족을 잉태한다. 추측컨대 알타이산지 파지리크의 얼음공주 여사제도 같은 유형일 수 있다고 본다. 通天巫인 여사제가 하늘의 햇빛을 받아 天孫을 잉태하면서 보드마마인 ‘부르칸’으로 成肉身化해, ‘부르칸’은 그대로 天孫의 母胎가 되는 것이다. 몽골어에서 부르칸은 그대로 ‘하느님’이나 ‘무당’이라

는 뜻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천손을 잉태하는 母胎’로서의 ‘하느님’, 곧 ‘모성적인 하느님’이라 하겠다. 고대 이집트나 잉카에서의 태양숭배처럼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절대자가 아니라, 생명을 품어 안아 마음을 삭이며 순리로 키워내는, 구체적인 한 생명의 모태화한 하느님을 ‘부르칸’이라 한다고 하겠다.<sup>8)</sup>

불교적인 윤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弘益人間」이라는 단군의 조선 건국이념이 이를 은유적으로 말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툰드라-타이가-스텝으로 이어지는, 작렬하는 태양이 사정없이 내려 쬐는 이집트나 잉카의 생존환경과는 꽤 다른, 발효식품이 유난히 발달한 이 지역 나뭇의 햇살 아래서 남다르게 생성되어 온 하느님 개념일 수 있겠다. 이 지역에서는 햇빛은 금빛이고 흰색은 주로 주식의 하나인 젓색이나 만년설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白山’은 萬年雪이 뒤덮인 북방에서 유래한 이들의, 자연을 보는 인식관행을 반영해 주는 산 이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해, 곧 태양숭배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무릇 白山은 ‘흰’이지만 ‘不咸(부르칸)’은 ‘붉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햇빛이 여성의 육신에 내재화되어 천손을 잉태한 모태가 될 경우에는 紅柳 곧 朝鮮柳<sup>9)</sup>로 상징되는 보드마마가 되는데, 바로 이 ‘보드마마’가 ‘부르칸’인 이 이들의 하느님이 된다는 것이다. 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한 여인의 몸땀에 내재화하여 모태로 다시 난, 모성적 사랑의 주체가 이 이들의 하느님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부르칸(不咸)’은 ‘밝음’이 아닌 ‘붉음’의 뜻을 갖는데, 그 붉음은 구체적인 생명 밖의 물리적인 불덩이와 같은 붉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구체적인 생명속에 내재화한 가장 붉은 사랑의 심정 - 곧 모성적 사랑으로서의 ‘심정적 붉음’이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이 이들에게 굿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칸이즘은 이 이들에게 영원한 母胎回歸信仰<sup>10)</sup>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정교의 탄압에 대항하며 알타이겨레들이 은밀히 부활시켜 낸 새 형태의 사

8) 주채혁, 「부르칸(不咸)이즘과 柳花, 그 母胎回歸신앙 연구」, 『백산학보』 59, 2001년 6월, 백산학회, 27~51쪽 참조. 이와 관련해 필자는 2004년 2월 9일에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천안삼거리 「버드나무공원」을, 하늘을 뜻하는 ‘도솔’이라는 천안의 옛 이름의 뜻도 있고 붉은 버드나무에 不咸(Burqan : 紅柳) 곧 ‘하느님’이라는 북아시아 원주민언어의 語意도 있으니 聖水가 샘솟는 천안삼거리 「紅柳公園」 - ‘Burqan park’로 되살려 우리 겨레의 北方起源을 상기시키는 ‘모태회귀의 태반’으로 가꾸어 가면 좋겠다는 이 - 메일을 보냈다.

9) 길림성 야생식물 편집위원회 편저, 『吉林省野生經濟植物志』 길림성인민출판사, 장춘, 1921년, 21쪽의 楊柳科 (Salicaceae) 鑽天柳(Chosenia bracteosa Nakai)란에 보면 “朝鮮柳”(胡先驥), 順河柳(東北), “紅柳”, 上天柳 등의 별칭을 나열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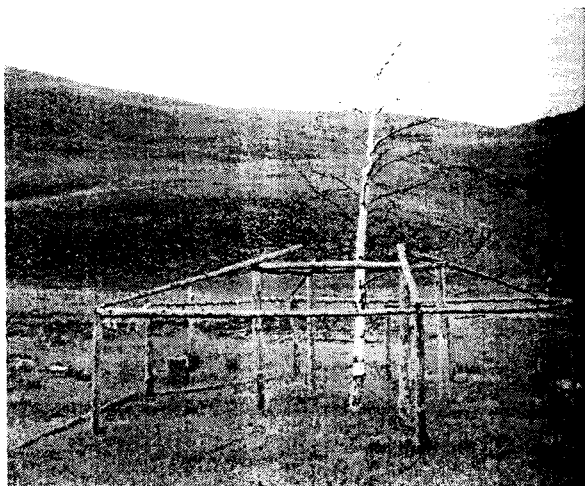
10) 한 생명의 불이 켜진 이후부터 그 생명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심정적 핵심은 거의 전적으로 본능차원의 모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르칸이즘이 사람 목숨들의 신앙주체로 각인돼온 듯하다.

머니즘 - 부르칸이즘의 '부르칸'은 사람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신령스러운 곳이라 했으니, 그대로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존재(only one)로서의 개체생명의 가장 귀한 존엄성(best one)이 그 숨통을 트고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인 胎盤 - '부르칸'이라 할 수 있다. 만주 샤먼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꽃아 놓고 보드마마를 불러, 생명이 생명을 먹어야 생명으로 사는, 살벌한 삶판에서 상한 마음을 구슬리는 굿판을 벌이고 춤을 추어 몸을 추스르면서, 龜旨歌나 處容歌와 같은 巫歌類의 노랫말로 노랫기도를 드려 숨결을 제대로 고르게 해 가며 제 부르칸이즘을 품어 부화해내어 온 오랜 신앙살림살이가 보여 주듯이, 북아시아 전통의 핵심에 선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 담겨 있다고 하겠다.

실은 단군신화의 神壇樹<sup>11)</sup>는 고착된 거목 숭배이기보다는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인

11) 홍기문, 『조선신화연구』, 지양사, 1989, 127~200쪽, 제2편 '단군신화'에서 각종 사료를 망라해 치밀한 사료고증을 하고 있다. 다만 몽골리안 루트에 산재해 있는 같은 유형의 신화들까지 포괄하는 시각에서 현장답사를 통해 신화를 들여다본 흔적은 찾기 힘들다. 『三國遺事』, 王曆 第1, 紀異 第2, 古朝鮮條에서 「신단수」에 '壇'자를 쓴데 대해 古記를 인용한 『應製詩註』, 第二十張과 『帝王韻記』 하권에서는 「神壇樹」라고 '壇'자로 쓰여 있다. 위 『삼국유사』 기사의 「太伯山頂」도 그것이 타이가로 批正될 경우에는 꼭 大山의 꼭대기가 아니라 본래 高原인 小山地帶 - 「鮮」의 '집터'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貂弓이 貂族이 만든 활이듯이, 檀弓 또한 檀族이 만든 활이다. 단군은 결코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 아니다. 檀氏 성이 있는 까닭이다. 몽골 - 시베리아 고원지대에서는 자작나무가 신앙의 대상이고, 저습지대에서는 붉은 가지 버드나무 - 紅柳가 신앙의 대상일 뿐, 박달나무가 무슨 '밝은'의 뜻을 가지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예는 필자가 아는 한 전혀 없다. 바이칼호 울론섬의 신령스런 부르칸(바위)이 나무꾼과 선녀전설이 어린, 세계사적인 문화유적 강원도 高城郡 鑑湖의 鑑(keam)과 같은 뜻을 지닌 다른 갈래의 말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나나이족 말로는 purkan이 그대로 버드나무이기도 하다. 이 鑑湖 사진(양양문화원 부원장 崔洛珉 찍음)이 중앙의 월간지인 『역사탐험』, 2004년 - 13호에 처음으로 실렸다. 그러나 2004년 7월 2일 高城郡 주관으로 열린 <고성군 설화형상화 프로젝트 학술강연회>(金容慶교수 기획)에 「<貂>과 濊 - <山獺>과 水獺, <貂高麗>와 "몽골",이란 제목으로 동참하려, 아. 오치르 몽골국립박물관장과 엔. 베. 아바예프 투바대학교 교수 그리고 윤은숙 석사(강원대 사학과 강사)와 박상현 충북대 로어과 학생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냉담하여 크게 당혹스러워 했다. 소외감에 깊이 파묻혀 남북으로 분단된 채 버려진 고성군의 모습 그대로였다. 不威(Burqan) - 「紅柳신앙」은 겨울에 잎이 떨어진 눈위 붉은 가지 버드나무 때의, 화염 같은 타이가 현지의 그림을 몸소 보지 않고는 그 신앙의 실체를 확인키 어렵다. 몽골인이 태어나는 곳이자 죽어 돌아가는 지성소가 부르칸이다. 그래서 부르칸은 모태회귀신앙이다. 朴赫居世의 '朴'도 밝음이 아니라 '붉음'이다. '붉을 赫'자지 '밝을 赫'자가 아니고 이두로도 '弗矩內'라 하지 않았던가. 무당 색깔이다. 2002년 월드컵 한국 응원단복의 색깔이다. 무당색깔이다. 그래서 터키선수들은 애초부터 '붉은 악마'가 되어 오지 않았던가? 모두 제사장 종족이었을 수 있다. '붉은 악마'를 레드컴플렉스니 뭐니 하고 읽어대는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각으로는 아직도 '붉음'을 '밝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을는지 모른다. 근래 몽골현지 답사를 다녀온 어떤 이의 글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부르칸(不威)을 '밝음'으로 새겨 읽고 있음을 보노라면, 일제하 마구잡이 '해신앙'의 잔재가 대를 이을 만큼 뿌리가 깊은 것임을 실감케 된다. 현지에는 물론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

게르를 神堂으로 삼는 神壇 곧 화로 곁에 天窓을 꿰뚫고 세워진 자작나무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게르가 아직 타이가속의 원통형집 곧 춤(에웁키), 야랑가(축치), 초골간(몽골), 仙仁柱(에웁키) 또는 斜仁柱(오룬춘)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작나무 신단수가 천청을 꿰뚫고 세워지고 그 위에 하늘을 오가는 새만 날아와 앉으면 그대로 샛대(鳥竿) - 솟대가 되는 것이다. 게르든 춤이든 집의 기본틀은 버드나무나 낙엽송처럼 물과 상관의 있는 나무<sup>12)</sup>로 열개를 엮어 만들고 通天鳥가 내려앉는 솟대인 자작나무 신단수는 야산에 나는 것으로 하늘과 관계된다. 하늘의 빛을 받아 집(子宮)안에서 생명의 불이 켜지면 모정이 스며든 모유가 흘러 새생명이 먹고 산다. 특히 툰드라에서는 화덕의 불씨가 지퍼져 집안에 온기가 돌아 피를 덥히고 밥이 지어지며 국이 끓어 정성스레 음식이 차려져서 식구들이 요기를 하고 흑한을 이겨내며 생기를 차린다. 이런 신당과 신단수가 결합된 완성된 신전이 유목민 무당의 이동식 춤이요 게르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13)</sup> 물론 신단수도 유목민 이동식 신전의 신단수일 수 있다. 내 밖에 멀리 계신 하늘님이 아니라 내 생명안에 내 목숨 자체로 내재하는 하늘님인 셈이다.<sup>14)</sup>



【사진】 바이칼호 올콘섬 서쪽 툰타마을에 있는 옛 큰 샤먼의 집<sup>15)</sup>

- 12) 1993년 8월 몽골국 흡스쿨 아이막 에린징툼베 지역 답사시에, 오 푸렙 무속연구자가 처음으로 필자에게 제공해준 정보이다.
- 13) 2004년 8월 15~20일에 있었던 관훈크럽 바이칼호 답사 동행시에 딸찌야외박물관에서 문득 십여 년전의 낙엽송에 관한 옛 정보가 떠올라, 연상되어 정리했다.
- 14) 딸찌박물관 러시아전통가옥을 관람하면서 성화 성상 앞에 거의 예외 없이 버들강아지가 장식된 것을 보고, 그리스정교 하늘님과 시베리아 원주민의 샤먼 하늘님인 부르칸(紅柳)이 습합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러시아 전통목조건물이나 부리아드의 그것이 한결 같이 못을 쓰지 않고 지은 것이라는 점 또한 한국전통가옥들의 동일양식과 관련해 주목된다.
- 15) 정재승, 「태초의 인간, 알혼섬 샤먼」, 『바이칼,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 정신세계사, 2003년, 172쪽의 사진을 轉載했다.

그 무당집인 춤과 게르의 확대형이 그대로 유목민들의 역사적 태반인 타이가-스텝-툰드라 자체다. 그 너른 태반중에서도 내가 태어난 그 태반으로의 회귀 願望, 그 자체가 유라시아 북방유목민족의 부르칸이즘이다. 한사코 회귀를 열망하는 내 생명의 모태다.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생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농경 漢族은 상상키조차 어려운 정서관행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 사무치는 절절한 원망이 바로 그들의 예술의 원천이고 살맛을 내주는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스키토-시베리아 기원 곧 북방 유목민족 기원인 한민족에게도 당연히 이런 부르칸이즘이 그 계놈자체로 잠재해 있을 수 있다. 유목초지 회귀 원망, 절절한 부르칸이즘이 생명 자체로 내재해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태회귀 원망을 알든 모르든 그것이 우리의 숨결에 배어나 그 숨결대로 몸짓을 하며 그 생업터전으로 자기도 모르게 原始返本케 된다. 1990년 북방개방 이래로 문호가 열린 그 곳을 지향해 흐르게 마련이다. 順계놈 목동이 되어 생명과 기계가 호흡을 맞추는 騎오토바이 양유목이 아닌 생명과 생명이 호흡을 맞춰 양을 유목하는 騎馬 양유목식 생명존엄 志向型 順계놈한국 축산을 가없는 북방고원지대 유목초지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진실하고 싼 목축노동력을 동원해내어 육질이 좋고 싱싱한 무공해 原始肉을 싸게 많이 인류에게 공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선 흑룡강성의 수전농업지대화에 조선족 농민이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듯이, 한국인의 계놈은 북방 시베리아의 축산경영에서도 성공케 하는 역사적 원동력 자원으로 기여케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칭기스칸 몽골의 중심목장이자 현재 우리 韓牛의 고향인 동남몽골 수흐바타르 아이막 다리강가 大스텝<sup>16)</sup>에서부터 이런 한국축산의 위대한 실험이 시동 걸려지기를 고대한다. 그 실험이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다면 한국축산의 활로는 물론 경제적으로 枯死狀態에 있는 현지 원주민<sup>17)</sup>들에게도 생기를 북돋우는 일이 되겠기에 그러하다.

16) 李龍範, 「成鈺(익) 蒙古牛 買入과 枝三·南草」, 『震檀學報』 제28집, 1965년(이용범, 『韓滿交流史 研究』, 동화출판공사, 1989년, 345~395쪽을 참고했다). 이 지역은 한몽공동학술조사연구팀이, 1990년 북방개방 이래로 처음 답사와 유적지 발굴을 시작해 보고서를 낸 곳이기도 하다(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몽골과학아카데미 『한몽공동학술연구』 1~4집, 1992~1995 참조).

17) 유명한 목마장이었던 훌룬부 이르 몽골스텝의 牧馬가, 騎馬 양유목이 騎오토바이 양유목으로 바뀐 이래로, 일본인의 말고기 수요에 힘입어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이라고 한다(2000년경에 현지에서 들은 정보다). 이런 상황하에서 鄧小平의 개혁·개방 이래로 유목초지를 농경지로 대거 바꾸는 일이 특히 동남 내몽골스텝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황하수의 고갈화 촉진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몽골스텝의 사막화를 급격하게 촉진시키게 되었다.

## V. 맺 음 말

高麗(khori)는 鮮에서 이끼 - 蘚(lichens)을 뜯어먹고 사는 차이복 - 馴鹿이다. 따라서 순록유목민 기원의 고려국의 시원영역은 북유라시아 및 북아메리카의 스텝 - 타이가 - 툰드라 유목초지권역이라 할 수 있다. 大山 지대인 장백산맥 - 백두대간권에 들어 농경정착민화하면서, 고려인 - 한국인들은 수천 년전의 그들의 태반인 장백산맥 북서편의 小山 지대 곧 타이가 · 스텝 - 鮮原 태반역사를 점차로 망각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유목사적 정체성'을 유목초지를 떠나 농경지역에 들면서 상실해온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기본 계놈은 이미 주로 북유라시아 한랭고원지대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유전체학을 비롯한 각종 첨단과학이 동원되면서 고려인의 순록유목사적 역사태반의 정체성 회복도 그리 어렵지는 않은 역사적 단계에 우리는 이미 진입하고 있다. 유목적 기동성과 조직성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아메리카대륙 앵글로색슨의 역사적 태반을 15세기 이전의 서구에서 찾듯이 과감히 장백산 저편의 유목초지의 태반역사를 발굴해 간다면, 오늘날의 과학발전 단계에서는 오히려 쉽게 찾아질 수도 있는 우리의 유목사적 정체성이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잘못된 오랜 기존 인식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시각과 깊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자기 자신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그리고 제 나뭇의 계놈대로 숨쉬고 제 계놈의 장단으로 춤출 수 있도록 逆계놈적 인식사슬을 단호히 끊어버리는 용단이 이에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점차로 자연스럽게 모태회귀하려는 제 나뭇의 정서가 본능차원에서 강렬하게 솟구쳐 오를 것이다. 우리의 계놈속에 잠재해 있는 북방순록유목민 출신 고려인다운 부르칸(不感)이즘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고려인 자신의 역사적 태반인 유라시아 북방 유목초지에로의 회귀본능이 용트림질할 것이다. 가없는 유목초지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며 順계놈목동의 順계놈 한국축산을 고대하고 있는 고려인의 태반 - 북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의 유목초지, 그것은 앞으로 그 어떤 지하자원 이상의 중핵이 되는 자원으로 생명존엄이 전제되는 생명들의 順계놈살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생명과 생명이 호흡을 맞추어 속도를 내고 생명과 생명이 장단을 맞추어 살림살이를 일으켜내 참생명살이의 단초를 여는 생명산업이, 부르칸이즘이 가져다 줄 순록유목민 출신인 고려 - 한국인의 축산 세계화과정의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흑룡강성을 水田의 바다로 일구어내 마오쩌둥이 수십 년 혁명투쟁으로도 이루지 못한 십수억 중국인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해낸 주역이, 감히 북방수전농업에 도전 · 응전한 조선족 농민이다. 실로 북방유라시아 및 아메리카의 한랭 고원지대 유목초지에서, 생명존엄을 고려하는 한국

목민의 順계놈 특수축산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기대되는 지금이다. 우선 韓牛의 본고장이며 칭기스칸 몽골의 중심목장이었던 동몽골 다리강가스텝 유목초지에서부터 그 위대한 실험의 시동을 걸어볼 것을 제안한다. 풍요한 유목초지의 낙후한 현지 목민동포와 기술과 지식 및 자본 확보 수준이 그 이들보다 앞선 우리가 함께 일어나는 한국 북방유목초지 축산의 巨步를 몽골 세계제국의 중핵 첨단무기 제조기지 - 다리강가 목마장에서부터 내딛어보자!